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양조력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98년 조계종포교원 산하로 전국 규모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창설돼 청소년포교의 큰 틀을 마련했다.

◇세계 최초의 불교방송인 BBS 개국('90)에 이어 96년 불교TV가 첫 전파를 발사했다. 생생한 전법현장을 전해주며 포교활성화는 물론 바른 불교를 이끄는데도 기여했다.

◇1959년 조계사에서 열린 육사 졸업법회. 이후 군승 파견, 군법당 신축으로 매년 6~7만명의 장병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

정부수립 50년 전법 50년

순회포교서 방송·인터넷까지

정부 수립 이후 반백년, 현대사는 좌우 이념대립과 전쟁, 경제개발과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됐다. 불교는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불자의 사명인 전법의 탑을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조계종은 96년 전법 50년 사업을 확정하고 그 첫 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며 전법의 기치를 올렸다. 지나간 50년 전법의 역사를 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과 21세기를 준비하는 각오를 다지고 전략을 수립할 때다.

50년대 재가조직의 태동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56년 6월 전국신도회가 창립되었으며, 58년에는 대한불교청년회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마야부인회 반야부인회 등 여성단체도 창립되었다.

정광고 금산상고 심인중·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동국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때도 이 시기다. 유성갑 최범술 이종욱 허영호 박성하 전진한 등 승려출신의 국회의원 및 장관 진출이 많아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려준다.

60년대 정화의 여파로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양분된 가운데 62년 조계종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3대 사업으로 도제양성과 포교, 역경을 채택했다.

60년대는 해외포교에 첫발을 내딛어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준 시기로 기록된다. 대만 홍콩 일본에 홍법원에 이어 미국, 캐나다에 한국사찰이 건립됐다.

이와 함께 60년대는 대불련의 조직, 소년소녀교화연합회(청소년교화연합회의 전신)가 만들어지는 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불교의 싹을 틔웠다.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인 불교참보어린이합창단(참보사)이 창단됐다. 66년 창립한 불교교육연합회가 이듬 해 각급학교 불교교과서를 발행했다.

61년 운허스님이 〈불교사전〉을 발간한 것을 신호탄으로 한글대장경 발간 착수, 〈우리말 팔만대장경〉 간행 등이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마침내 64년 7월 동국대 내에 동국역경원이 개원하기에 이른다. 68년에는 군승제도가 시행되며 군법사 5명을 파견, 군포교에 본격 나섰다.

70년대 '대중불교' 운동이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72년 창립한 대원회는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해 불교대중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과 함께 여의도·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이 시작돼 시민축제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신도회 전국순회법회도 이 시기를 풍미하는 행사였다. 당시 회장이었던 김제원씨(신진자동차 회장)가 제공한 8톤 트럭을 개조해 71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31개 시·군에서 실시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물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조계종 포교원의 개원과 천태종 중앙청년회, 진각종 전국청년회, 한국불교연구원 개원과 서울구도회, 삼보법회 등 굵직한 신행·교육단체가 창립돼 전법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서창업 김용호 최영철 등이 많은 찬불가를 발표했으며, 74년 삼보법회 불교합창단 창단 이후 사찰마다 합창단을 구성, 불교행사에서 음성포교를 펼쳤다.

80년대 불교의 대중화에 힘입어 도심포교당 개설붐이 일면서 침체됐던 한국불교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민중불교운동의 태동도 이 시기다. 84년 5월 고은 여익구를 비롯한 진보적 불교인 1백여명이 민중불교운동연합을 창설, 사회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 구로동에 여래포교원을 열어 노동자 포교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직능단체불자회가 본격적으로 창립되기 시작했다. 국회정각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계비역장성불자회 연예인불자회 창립이 줄을 이었다.

86년 종실스님이 명아 대상의 법회를 처음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점자불경 발간, 만삼회, 해광명인불자회 백화도량 창립이 이어졌다. 석주스님이 제1회 법무부 교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산교도소 교정인불자연합회, 서울구치소 불자회, 대전교도소 불심회가 창립돼 재소자교화에 나섰다.

60년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 창간 이후 부침을 거듭했던 불교언론은 80년대 들어 〈불교회보〉(주간불교 전신), 〈법보신문〉 〈대한불교〉 등의 주간신문과 〈불광〉 등 월간잡지가 창간되며 매체포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교출판도 80년대 중반 활기를 띠며 일반인들을 불교로 이끄는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90년대 90년 5월과 95년 3월 각각 개국한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전파의 위력으로 생생한 전법의 현장을 전해줌으로써 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부다피아' 조계종 홈무원 등이 첨단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에 나섰다. 성철스님의 삶은 온국민들에게 삶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했다. 성철스님의 입적으로 10년 동안의 포교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었다.

94년 11월 조계종 포교원이 넬원으로 독립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치권의 불자회 탄생도 90년대의 한 특징으로 꼽힌다. 한나라당불자회, 자민련불자회, 국민회의 연동회가 속속 창립되었다.

90년대는 한 세기의 정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 놓인 시기이다. 중생이 귀의하는 불교의 새로운 면모를 준비해야 한다.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전 조계종포교원장)은 "존경받는 수행자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경전과 불교문화의 보급이 중요하다"며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50년대
재가불교운동 태동기
종립교육기관 잇단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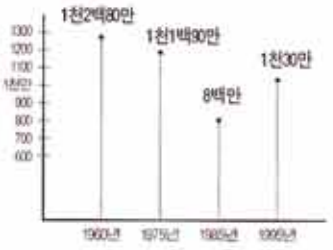
60년대
해외포교 거점마련
어린이·청소년 포교 관심

70년대
불교교양대학 설립
찬불가 제작-합창단 창립

80년대
불교언론 활동 활발
도심포교당 개설 잇달아

90년대
방송 전법시대 '활짝'
정보화시대 포교 기틀

◇음성공양은 불법의 환희심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4백여명으로 구성된 불교연합합창단의 창작국악교성곡 '불법에 피는 꽃' 공연 모습.



* 1960년 불교인구는 서울연감('60), 75년은 정신문화연구원 발행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85년, 95년 수치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임

◇승신스님의 해외포교 30년을 기념해 외국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심포교당 개설은 불교의 현대화를 촉진했다.

초대 조계종포교원장
석주스님께 듣는
'새로운 50년 전법'

"청소년 불자는 불교미래 자산"

77년 2월 포교원장에 취임할 당시 포교에 대한 열의가 한참 일어날 때였다. 의욕이 강하다 보니 모든 부문이 융성됐던 것 같다.

요즘들어 가만히 보면 신도가 줄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예전처럼 열의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종단의 무관심으로 인해 대학생포교가 시들해진 것이 보이고, 어린이, 중·고교 불교학생회도 사찰에서는 포교하려하지만 학생들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지도교사들의 열의가 부족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발생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직장 등 포교분야를 시대상황에 맞게 더욱 넓혀야 한다. 실보사의 경우 국세청불자회가 법회를 보고 있는데, 이들을 사찰에서 포용하여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포교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찰의 경우에는 포교사를 상주케 하여 관광사찰에서 일반인들을 포교하게 하고, 하생법회 등 특수분야 법회를 담당케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사찰행정도 구태를 벗어나 스님과 신도가 같이 사찰을 운영하도록 바뀌어야만 앞으로의 펼쳐질 전법 50년이 성과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법 50년 주요일지

48. 8. 15 대한민국 수립 선포.
종교업무 문교부에서 관장.
49 송광사, 순천에 직할포교당 개원
55 운문스님, 목포 정혜사에 어린이법회 최초 개설
56. 6. 16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창립
9 대각회 창립
62. 1. 조계종, 도제양성 포교 역경을 불교중흥 3대사업으로 채택
9. 28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63. 6. 8 대불청 성전편찬위원회, 〈우리말 팔만대장경〉 간행
9. 22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64. 7. 26 동국역경원 개원
65. 5. 참보사, 어린이합창단 창단
66. 4. 22 삼보법회 창립
5. 15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67. 3. 19 불교종립학원업합회, 불교교과서 발행
6. 25 중립 명성여중·고 불교학생회 창립
68. 7. 24 김봉식 등 군승장교 5명 임관
69. 1. 17 천태종 신도회 창립
9 송광사 불일회 창립
71. 10. 전국신도회, 10·4~12월말까지 전국순회법회 실시
72. 6. 26 군법사단 창립
11. 30 조계종 〈불교성전〉 간행
73. 3. 2 대원불교교양대학 개설
4. 19 불교사상 1000명 최대 합동수계. 육군 3사관학교
7. 7 한국불교학회 창립
74. 4. 5 한국불교연구원 개원
11 조계종 불교음악연구원 설치
75. 1. 14 음력 4월8일을 공휴일로 제정
8. 16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77. 3. 6 조계종포교원 개원
79. 6.20 진각종 전국총금강회 창립
83. 3. 4 천태종 금강학회·금강불교대학 개교
85. 5. 4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87. 8. 5 대한불교진흥원 〈통일법요집〉 간행
88. 7. 1 국회정각회 창립
89. 7.15 대원회 제1회 대중불교강사 전국대회 개최
90. 5. 1 불교방송 개국
92. 3. 18 불교계 최초로 점자 포교지 간행
93. 11. 3 해인사 고려대장경 6백년만에 첫 나들이
94. 2. 6 캐나다 대각사 우리말 불교방송 시작
11. 16 조계종포교원 법원회
95. 3. 1 불교TV 개국
96. 1. 21 조계종 전법의 해 선포
9. 30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97. 1. 18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